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비읍의 우스꽝스런 말투 우리 모습 같네요

우릴 말 꼭꼭 씹어 먹기

주변에 벽창호가 있다면 불쾌지수 높은 여름날 더 무 답겠지요?
우리 집 골목에는 선술집이 늘어서 있는데요. 아주 늦 은 밤까지 골목에 의자를 놓고 술손님을 받아 잠을 잘 수 없어요. 열대야 때면 창문 열어놓고 자는데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죠.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도 벽창호 같어요. 그런 밤이면 제 이마엔 눈개비가 내리고 자리 까만 마셔대지요.

벽창호: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무뚝뚝한 사람. (넷플 벽창호가 아닌 답에야 그런 생각이 없겠나)(심훈<상록수>)

선술집: 술정 앞에 선 채로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 (그는 퇴근길에 혼자 선술집에 들러 소주 한 두 잔을 마시곤 했다)

논개: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골짜기마다 논개가 수액처럼 피어 오르고 그나마 산꼭대기에 구름이 감겨 있어)(문순태<타오르는 강>)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방 안에는 모기장이 쳐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아비가 늘 준비해 두던 자리끼도 없었다)(김원일<노을>)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성석제 작 '오렌지 맛 오렌지'

해학적, 풍자적, 우화적, 교훈적인 콩트, 장편 소설, 우화 소설이지요. 교훈주의, 휴머니즘적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편집부와 그의 집에서 일어난 비읍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 가시적인 인물에 대한 풍자와 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그리고 있지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을 우선 살펴보기로 해요.

비읍은 편집부 사원으로 지적 소양이 부족하고 고집이 세죠. 또한 인색하면서 체면과 허례를 중시하는 인물이지요. 리을을 비롯한 편집부 사람들은 비읍의 실수와 단점을 보며 그를 놀려먹는 것을 재미있어 하지요. 모두 관찰자적 인물이지요.

비읍이 편집부에 새로 입사한다. 그는 아는 것은 많지만 조금씩 잘못 알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자신이 틀렸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집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그가 실수를 하면 그의 틀린 지식을 별명으로 지어 줌으로써 그를 비꼬기 시작한다. '살도'라는 별명은 '뇌쇄'를 '뇌살'로 '쇄도'를 '살도'로 잘못 읽어서 생긴 것이고, '홍미울음'은 '홍미진진'을 잘못 읽어서 붙여진 별명이다. 말할 때마다 실수투성이지만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사람들은 이렇게 별명을 붙임으로써 놀려준다. 그러던 어느 날, 비읍이 결혼을 하자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집 들이를 가게 되었다. 비읍의 부인은 회사 사람들이 선물로 사간 오렌지 주스를 대접하지 않고 오렌지 맛 음료를 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읍 부인의 인색함을 놀려대며, 비읍은 '오렌지 맛'으로 그의 부인은 '오렌지 부인'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작품은 콩트 같은데 작가는 이런 짧은 이야기에도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네요. 다소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기 보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情' 느껴

지적 소양이 떨어지는 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해놓은 짧은 이야기잖아요. 수필이나 우화 쪽에 가깝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일정한 시공간과 인물들 간의 최소한의 갈등이 보이거나, 서사적 의미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에피소드들의 나열인데 작가는 기존의 소설과는 구별되는 글쓰기를 시도한 거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작품이 웃음을 자아내면서 그 안에 뭔가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우화 소설로 읽혀지네요.

여러분들은 소설에 대한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성석제라는 작가를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혹자는 이 소설의 이런 도전을 소설에 대한 유희적 태도로 보기도 해요. 작가 성석제는 가끔 '제가 써 놓고 제가 웃는다'고 말한다 해요. 즐겁게 쓰고, 독자들도 즐겁게 읽기를 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재미만 주고 있지는 않네요. 진지하고 정통에 가까운 소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네요. 독자들의 입상과 분리되어 엄숙하게 독자들을 지배하고 설득하는 것은 읽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또한 상업주의적 대중소설도 거부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독자를 지배하는 정통소설을 거부하며 작가 성석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독자와 밀착된 이야기 제시방법'이죠.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고 이 소설들은 웃음의 기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요.

<오렌지 맛 오렌지>에서 비읍이라는 인물이 실수를 할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새어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작품 안의 편집부 직원들과 함께 웃게 될거예요. 비읍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실수투성이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때문 아닐까요? 이 작품에는 공격적이거나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집스럽고 다소 가시적인 비읍에 대해 편집부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지극히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해학성은 공격적이고 냉철한 비판적 요소보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지요. 상대를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소설처럼 요즘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할머니와 지내는 것이 어려워요

두 달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수원 할머니 댁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엄마는 부산에서 일하시는데 한 달에 한번 돈만 보내주시고 오시지 않아요. 처음엔 할머니가 무지 좋았고 생활하기가 편했었는데 요즘엔 너무 힘드네요. 할머니 저보고 돈 달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루는 차비가 없어서 남문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원망스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학교에선 언니마저 이젠 체가 싫어졌다고 했어요. 저에게 마음을 잘 주지 않아서 어우 곳도 없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생각에 남은 요즘 참 외롭겠어요. 할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할머니에 대한 원망과 실망 또한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남아 현재 느끼는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문까지 차비가 없어 걸어가면서 남의 심정이 어떨었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서운한 점이 있지만, 손녀로서 할머니께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에서 남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삶을 살아가려는 남에게 더욱 더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남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얼마 전까지 친한 언니에게서 그런 위로를 받아왔던 것 같은데, 언니가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그 언니가 했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남 생각은 아때요? 참, 그 언니와의 일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생겼다면 풀기라도 필요하겠어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할머니나 친한 그 언니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남이 결코 혼자야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운 내고 잘 지내도록 약속하지요. (청소년세계)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차

茶心마루 소나무 쟁반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잔의 차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쟁반

▶ 일반 플라스틱 쟁반과는 다릅니다. 소나무원목 다듬어진 소나무 쟁반을 조각하여 만들어진 수공예 제품으로, 소나무의 온화한 무늬결과 소나무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기상이나 찻상으로 사용하시면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기있는 행주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향이 소나무의 무늬결이 살아납니다.

대(대): 49cm X 27cm 사이즈 모습입니다. 위의 다기는 장식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 39cm X 22cm
중 44cm X 24cm
대 49cm X 27cm

특별 할인가 3종 세트 5만원

소나무 쟁반 한 세트 (3종) 도매가 문의: 080-999-1080

※ 사이즈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mm 내외)

1 세트 5만원 (배송비 무료)
10 세트 이상 구매시 도매가 공급
본산지: 중국 (OEM 생산)

주문처 080-999-1080
농림: 177483-51-071977 (예금주: 천소현)

장뇌산삼재배

새로운 임야재테크

국내 최대 장뇌산삼 재배단지인 '장생고려산삼영농조합'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고소득 특화품목" 우수종자·종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종자·종묘의 보급

- 1 우수종자·종묘의 보급
- 2 행정절차의 지원
- 3 재배기술의 지원 및 교육

■ 장생의 3대 추진사항

■ 장뇌산삼(산양삼)
· 산양삼 특화품목으로 선정
· 농가에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전락품목으로 집중육성

■ 장생고려산삼 영농조합법인
장생산삼연구소 장생산삼박물관
*95%의 농가로부터 농산품 및 산양삼을 생산합니다. www.kwsang.com.kr

매일 오전10시, 오후2시 자체교육 실시 가을파종 예약 접수 중 상담 및 문의: 033)747-7637~8